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p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주경수(세바스티아노)
1 보좌신부 : 서기원(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이정미(마르첼라)
정정순(콘체사)
박선옥(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율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Table with 4 columns: 주일미사, 평일미사, 봉 성 체, 관면헌배. Includes details for high school and youth services.

소 식

금주의 성경 암송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야고 4,17)

‘본당의 날’ 행사 안내
* 일시: 10월 23일(오늘) 교중미사 후
Table with 2 columns: 시 간, 내 용.
제 43주년 ‘본당의 날’ 을 기념하여 교우가정에 자비의 성모자상을 배부합니다.

- 저녁 미사 안내
* 10월 27일(목)은 동서울 지구 사제모임으로 인해 저녁 7시 미사가 없습니다.
● 병자안수 축복식: 10월 30일(주일) 교중미사 후
● 유아세례식: 11월 5일(토) 오후 5시
● 견진성사 안내 (집전: 박순재 라파엘 몬시뇰)
● 합동 위령미사 안내

- 2016 건축헌금 마련 바자회 결산 보고
* 지난 10월 16일(주일)에 개최했던 건축기금 마련 ‘사랑의 바자회’는 본당 교우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 잘 마치고 되었습니다.
● 자비의 희년과 함께하는 ‘음악 피정’
* 견진교리 겸 일반 교우들을 위한 음악 피정

Table with 2 columns: 일 시, 주 제. Includes dates and topics for church events.

- 2016년 제 2회 청년 문화제 ‘청·청·청’
* 2016년 제 2회 청년 문화제 ‘청·청·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청년 연합회 총회
● 제 30차 엠마오 여행 제주 올레길 (18코스~21코스)
● 견진 꽃다발 예약 주문
● 10월 23일(오늘): 전교주일 2차 헌금(교구)
● 10월 30일(주일): 본당시설보수 2차 헌금(본당)

- 모 임
* 10월 23일(주일): 독서단
* 10월 24일(월): 성령 기도회 (강사: 하창식 바오로)
* 10월 25일(화): 연령회
* 10월 26일(수): 성소후원회 / 군중후원회
* 10월 28일(금): 해설단
* 10월 29일(토): 성찬 봉사회

성가번호 입 당: 450 예물준비: 221, 220 성 체: 173, 174, 164 파 견: 63



주 님 은 민족 들 의 눈 앞 에 당 신 정 의 를 드러 내 셧 네

은총으로 세수하다

‘사는 것이 다 죄입니다.’ 노인들의 고백성사 거리라고 한다.

나는 ‘사는 것이 다 은총입니다.’라고 오늘을 고백한다. 첫 번째 수요일은 본당 소 공동체 모임인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12구역 5반 10월의 반모임은 은총의 못자리였다. 반장의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모임 장소를 동네에서 멀리 떨어뜨렸다. 아파트 마당에서 만나, 함께 성당에 가기, 미사봉헌하기, 말씀나누기, 그리고 즐거운 일용할 양식 나누기, 본당에서 명석 깔아놓은 한낮의 음악 즐기기- 참석할 수 있는 반원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불박이 반원 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낯선 반원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성당에 가세요? 저는 000호에 이사 온 안젤라입니다.”

그 분은 우리와 만나기 오래 전에 우리들 집에 자연의 은총을 선물했던 것이 생각났다. 농원에서 손수 기른 싱싱한 채소를 반원들에게 여러 번 나누어 주었다. 스마트폰으로 카톡 카톡 딸꾹거린 무능한 내가 부끄러웠다. 전입 교우를 내가 먼저 찾아보고 반겨서 어울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은 선입견 때문이다. 요즘은 방문하는 것이나 전화하는 것을 꺼려서 스스로 반모임에 나올 때까지 미루어 둔다. 판에는 배려로 포장한 무관심이다. 이즈음 세대인 것을 어쩔 수 없다 여기며, 그래도 반 모임은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반원들이 아름답다. 처음으로 생각을 고백하고 어색해 하는 모습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 무너지어진 교우들의 믿음이 하느님 보시기에 흠족하실 것이다. 화기애애한 일용할 양식 나누기의 풍성함에 감사드렸다.

하모니카가 솔로악기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게 해준 연주자에게 고마웠다. 예쁜 반주자의 피아노와 하모니카 음들의 아릿함에 추억의 거리를 한참이나 헤매다가 ‘나’로 돌아왔다.

집에 오는 길에 「대니 보이」의 추억이 있어서 나누어 주었다. 내가 가장 연장자여서 고루한 이야기이지만 즐겨 들어주어서 고마웠다. —사춘기 때 영어선생님에게서 이 노래를 배웠는데, 마지막 부분의 ‘아이 러브 유 소’를 선생님은 ‘아이 미스 유 소’로 고집해서 가르쳐 주었다. 영어선생님에게 슬픈 사랑이 있었나? 의심했던 중학교 이 학년시절—

둘 셋이 모이는 곳에 항상 주님이 계시니 우리의 반모임은 계속되리라. 다음 한낮의 음악회를 기대하면서, 실천사항으로 성시간을 참석자 전원이 참여 하자고 약속했다.

<청담수필반 12구역 5반 최옥연제노베파>

♣ 환경 개선 봉헌금 (*목표액: 3억원)

♣ 청담동 성당 성물 봉헌금

환경개선 봉헌금 (10 / 18 현재)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성물 봉헌금 (10 / 18 현재)	
-	- 원	박 마리아	2,000,000원
총 누 계	167,049,000원	총 누 계	177,250,000원 / 381명

※ 아름다운 청담동 성전을 위한 성물봉헌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10만원씩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사무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물		감사헌금 (10 / 18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24,110,000	김 요한	200,000	이 소피아	100,000	총 세대수	3,7176
		김 마리아	50,000	홍 베드로	100,000	총 납부세대	1,325
주일 봉헌금	13,683,720	최 끌렛따안젤라	50,000	영어성경반	100,000	지난주 납부세대	14
		안 요안나	300,000	헌화회	2,000,000	지난주 납부율(%)	36%
성소 후원금 (4건)	660,000	합계 : 2,900,000원					